

제 1회 『인간관계론』_데일 카네기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3명
2020년 11월 22일 경남 창원시
올탑 스테디카페 석전동

수년에 걸쳐 나는 필라델피아의 엔지니어스 클럽과 미국전기 기술사협회 뉴욕 지부에서 강좌를 개설했다. 아마도 1,500명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나의 수업을 들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강의를 들었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 오랜 관찰과 경험 끝에, 공학 분야에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분야에서 최고 소득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인적 컨트롤이 중요하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카고 대학과 YMCA 연합학교는 성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를 했다. -중략- 이 설문에 따르면, 성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건강이었고, 그 다음이 바로 사람이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 수 있을까? 등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혹시 당신이 이 책의 처음 세 장을 읽고 난 다음에도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길러지지 않았다면, 적어도 당신에 한해서 이 책은 전혀 쓸모가 없

는 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영국 사상가 허버트 스펜서가 말했듯이, “교육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행동을 위한 책이다.

1장

꿈을 얻으려면 별통을 건어차지 마라

1931년 5월 7일 뉴욕시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범인 검서 작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2주간에 걸친 수색 끝에 ‘쌍권총’ 크롤리라고 불렸던,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입에 대지 않았던 총잡이 살인자가 웨스트엔드 애비뉴에 있던 애인의 아파트에서 포위된 상태였다. -중략- 크롤리가 체포되었을 때, 경찰국장 E. P. 멀루니는 이 쌍권총 무법자야말로 뉴욕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로 꼽힐만하다고 선언했다. -중략- 하지만 ‘쌍권총’ 크롤리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 경찰이 아파트를 향해 총을 쏘아 대는 와중에도 그는 ‘관계자 분께’로 시작하는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동안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인해 편지지에는 검붉은 흔적이 남았다. 이 편지에서 크롤리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옷 안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크롤리는 롱아일랜드의 한적한 길에 차를 세워 놓고 여자 친구와 질편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갑자기 한 명의 경찰이 나타나선 차에 다가가 말했다. “먼허증 좀 봅시다.” 아무런 말 없이 크롤리는 총을 꺼냈고 총탄을 퍼부어 경찰관을 쓰러트렸다. -중략- 크롤리는 전기 의자형을 선고받았다. 싱싱 교도소에 위치한 사형장에서 그가 “사람들을 죽인 대가가 이런 거군.”이라고 말했을까? 아니다. 그는 “나 자신을 지키려 했던 대가가 이거로군.”이라고 말했다.

한 개인과 국가권력이 보는 시각이 다름을 보여준다.

크롤리의 태도가 범죄자들 사이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태도였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음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절을 사람들에게

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데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왔죠. 그 대가로 제가 받은 것은 비난입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삶이고요.” 알 카포네의 말이다. 그렇다. 미국의 가장 악명 높았던 공공의 적, 시카고에서 등장했던 가장 자인한 갱단 두목이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백화점을 세웠던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나는 이미 30년 전에 남을 꾸짖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 애쓰느라, 하느님이 지능이라는 선물을 공평하게 나누어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투덜거릴 시간 따위는 없었다.”

독인군은 어떤 일이 일어난 후 즉시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비난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당한 병사는 우선 다음날까지 기다리며 마음을 가라앉힐 기회를 갖는다. 만일 즉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 시민사회에도 그와 같은 법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꾸짖음을 늘어놓는 부모, 잔소리하는 아내, 꾸짖는 걸 즐기는 고용주,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 남 탓하는 고약한 무리들을 위한 법 말이다.

이혼제도와 유사한 제도다.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

1908년 루스벨트는 태프트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사자를 잡겠다고 아프리카로 떠났다. 미국에 돌아온 루스벨트는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는 태프트 정부에 대노했다. -중략- 루스벨트는 태프트를 비난했다. 하지만 태프트가 그 비난을 받아들였을까? 물론 아니다. 눈물이 그렇그렁한 채 태프트는 말했다. “나는 그 이상 잘할 수 없었다.”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루스벨트? 태프트? 솔직히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요점은 아무리 루스벨트가 온갖 비난을 퍼부어 대더라도 태프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루르벨트의 비난은 오히려 태프트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게

만드는 원치 않았던 효과만 낳았고, 그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는 그 이상 잘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만들었을 따름이다.

비난이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이나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다른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픈 마음이 든다면, 알 카포네, ‘쌍권총’ 크롤리, 앨버트 폴을 기억하도록 하자. 비판이랑 마치 전서구와 같다. 항상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쳐보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비난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자.

죽어가는 링컨을 보며 육군장관 스탠튼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인간을 다스렸던 사람이 저기 누워있다.” 링컨이 사람을 다루는 데 성공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